

평화학포럼

ESG는 유행인가?

일시: 2021년 10월 28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줌(ZOOM) 화상회의로 진행]

사회: 구민교(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표: 김화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구민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0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구민교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요즘 뜨거운 ESG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진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진: 안녕하세요. 김화진입니다. 저는 상법과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각자 연구하는 것들이 전부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SG는 유행인가에 대

해서는 끝에 가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걸 꼭 들으시다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강연에 앞서 저는 로스쿨 교수잖아요. 로스쿨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모든 시간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카톨릭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지만, 교황 바오로 2세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희가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정의를 구현하라”입니다. 이게 법대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어떤 학문 분야를 연구하든 간에 최종적인 지향점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죠. 왜냐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인권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 지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인권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싸움이 없을까요? 싸움은 대개 보면 돈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불화가 있는 경우에 돈 문제가 대부분이죠.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돈이 너무 부족해서 싸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려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분배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도 정의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가의 연구로 생각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누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도 정의합니다. 기업지배구조 연구가 오래됐어요. 한 3~40년 됐는데, 최근에 와서 제

가 이때까지 주장해 왔던 ‘분배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ESG예요. 그래서 ESG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 평화를 실현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한 이념이고, 결국은 그것이 인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쪽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ESG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기업지배구조(G) 영문 약자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투명 경영은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이렇게 되죠. ESG의 최종 목표란 ‘지속 가능한 회사’입니다. 회사라는 게 우리가 생산 활동을 위해서 만들고 필요가 없어지면 없애고, 아니면 좀비로 만들 수도 있고, 굳이 오래 가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70년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은 필요하면 회사를 없애고 다른 데 투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 주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기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지속하다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를 잃으면, 전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타격을 받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기업과 거래를 한 사람들은 그 기업이 없어지면은 사실 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능하면 오래 가야 하고, 그러려면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주들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경제적 실체들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ESG가 나온 것인데 정치 이념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의 진화를 재산적 기준으로만 평

가할 수는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돈보다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배려하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주주는 1/n이라는 거예요. 꼭 1/n은 아니고 2/n 정도는 되겠죠. 요지는 주주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ESG의 배경입니다.

최근에 하버드대 교수들이 *Stanford Law Review*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 ESG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연구했더라고요. 연구 결과, 1700년대에 교회에서 ESG가 시작한 것으로 나옵니다. 감리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상업 또는 영리 활동을 하되 사회에 해로운 방식으로는 하지 마시오’라고 설교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노예 매매’와 ‘유해물질 생산 판매’를 금지한 것이 연원입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자본시장이 생기고 ‘사회적 투자 펀드’라는 펀드가 등장합니다.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그런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에는 돈을 넣지 않겠다는 모토를 내건 것이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예요. 이 펀드들이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1960~7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을 할 때입니다.

‘사회적 투자 펀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의 일부가 1980년대에 발전해서, 투명 경영과 준법 경영을 하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면서 ‘기업지배구조 펀드’로 탄생했고, 이것이 오늘날 ESG 펀드로 발전한 것입니다. ‘ESG 펀드’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 어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주도

해서 만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투명 경영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높고 돈을 잘 벌더라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판결은 100년 전에 나온 판결인데, 저는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ESG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업가 중의 한 사람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저 뒤에 있는 차가 ‘모델 T’라고 부르는 차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종 4개 중 하나이자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입니다. 이 차가 많이 팔려서 포드 자동차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헨리 포드도 엄청난 부자가 됐죠. 닷지 형제는 자동차 부품을 포드에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협력업체와 본사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관례죠. 닷지 형제도 포드 자동차의 10% 주주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동차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 형제가 ‘우리도 부품만 만들어서 납품할 게 아니고 독립을 해서 자동차 회사를 차리자’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닷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 브랜드는 크라이슬러로 넘어갔다가 피아트에 남아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포드 입장에서는 이 형제가 배은망덕하잖아요. 자기 덕분에 컸으면서 내 경쟁자로 나서겠다고 하니, 이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 닷지 형제의 자금줄을 말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닷지가 포드의 10% 주주였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포드는 매년 정기 배당금 외에도 수시로 특별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닷지 형제에게 1911~15년 사이에 당시 돈으로 2,6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특별 배당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제 정기 배당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특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돈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을 합니다. 시작은 종업원 급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 올렸어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탈 수 있게 차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닷지 형제가 꽤 씩해서 특별 배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좋은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닷지 형제는 이런 활동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배당금을 계속 지급하라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 결과, 미시간 주 대법원이 1919년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은 “포드 씨,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당신 개인 돈으로 하세요. 회삿돈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영리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영리회사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사의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정도에서 가능하지, 아예 사회사업을 하는 건 곤란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판결이 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ESG 하겠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 법이 유지됐는데, 1970년에 밀튼 프리드만이 이념적 좌표까지 제시합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익을 많이 내시오. 그러면 저절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냈다는 것은 뭐예요? 급여를 다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임직원들이 그걸로 생활하고, 저축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병원도 가고, 기부도 하고, 더구나 근로소득세를 내죠.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결제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중

업원들 급여 주겠죠. 그다음에 또 세금 또 내겠죠. 주주들은 배당받아요. 배당소득세 내죠. 대주주들은 나중에 상속세도 내죠. 그다음에 주주들 중 공익재단들은 배당받은 것으로 사회사업에 지출하잖아요. 이익이라는 게 저절로 사회 기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했다는 증거예요. 쉽게 와닿는 물건들로 한번 따져볼까요. 기업들이 책과 약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약보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수준의 음악을 누릴 수가 없죠. 아프면 먹는 의약품도 기업이 만들죠. 식품의 가공과 유통 이런 것들도 기업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공급해서 이익이 난 것입니다.

월마트 창업자 월턴은 평생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는데도 기부를 한 푼도 안 했어요. “왜 기부 안 하십니까”라고 묻자, “나는 이미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월마트가 가장 큰 유통회사가 됐습니다. 충분히 기여한 거예요. 월터 기부를 합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부자들 주위에는 항상 무엇인가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와서 뭐 좀 해달라, 기부해라, 뭐 도와달라 그래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나 그건 못한다”라고 하며 아예 안 하기로 했다고 하죠.

모두가 밀턴 프리드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학자가 이념적 좌표를 제시한 것이 과거 포드 자동차 판결 현행법과 부합하기에,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익을 많이 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냐고요? 기술 개발 열심히 해야 되죠. 경영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투자 잘해야 되죠. 마케팅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주주들이 묘안을 내게 되어요. 경영자들이 실적을 좋게 내기 위해서 즉,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실적에

비례해 보수하고 보너스를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필두로 성과 비례, 성과에 연동된 보수 체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됩니다.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과를 내는 방법으로 임직원들 쥐어짜게 됩니다.

임금을 짜게 주고, 경력 많은 사람 일찍 퇴직시키고, 신입사원들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이익은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 오르고 보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다음에 뭐가 더 있을까요? 협력업체 후려치기 하면 됩니다. 6개월짜리 어음 주고, 단가 후려치고... 그다음으로 아예 회계를 분식해요. 500억 벌었는데 1천억 번 것으로 조작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자본시장에서 주가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결국 2008년에 우리 모두가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옵니다.

‘딥워터 호라이즌’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BP에서 운영하던 해저원유채굴선인데, 이것이 폭발해서 20명 정도가 사망하고 멕시코만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BP 주가는 그때 거의 0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수조 원의 벌금 내고 손해배상 하면서, 저 사고 하나로 돈 번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주위에 있는 수산업계와 관광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이예요.

이 사고가 난 이유는 ‘딥워터 호라이즌’이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영화에 커트 러셀이 나오는데, 현실 고증을 충실하게 하여 제작이 됐고 재미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회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은 규정 위반이라고 수차례 지

적했지만, 회사는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비용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루 당기고 이를 당기고 사흘 단축합니다. 결국, 회사돈 아끼기 위해서 위험한 짓을 하다가 회사를 완전히 들어먹은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주주들의 탐욕을 반성하라는 취지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도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기업을 주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저 밑을 보면 원탁에 쪽 둘러앉았잖아요. 주주도 1/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Virginia Law & Business Review*에서는 로스쿨에서 포트 자동차 판결을 그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문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블랙록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까지 지분을 보유한 곳도 있어요. 핑크 회장은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밀튼 프리드만의 생각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큰 손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게 뭐니까? 생각이 안 맞으면 돈 뺏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5% 주주가 투자를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락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자들은 자기 자리도 위험해지는 거죠. 핑크 회장의 말은 권고 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 요즘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또 띄웠어요. 지금까지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해 조직 원리를 만들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목표는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시

가총액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발행 주식 수 X 시가’잖아요. 지금까지 주식 가격과 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앞으로는 주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설정해야 한다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노트북 켜고 엑셀 파일을 열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숫자로 나오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르죠. 이익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런 것을 기업 경영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입니다. 하버드의 올리버 하트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이 교수가 몇 년 전에 쓴 논문에서, 회사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주주들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경제학 논문들이 그렇듯 이 논문도 수식 잔뜩 나오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요지는, ‘주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 주주들 보십시오. 여태까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인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에 주주로 있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게 나의 투자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는 돈 벌어서 기부하던 사회사업을 하면 되죠. 담배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정부가 다루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주주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유회사 주주들이 제일 불편해요. 세계에서 사회적 공격 1호라며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초 세계에서 가

장 큰 석유회사 중의 하나인 ‘엑슨 모빌’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0.02%밖에 안 가진 주주가 이사회 이사 12명 중 세 명을 임명했어요. 지분이 0.02%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금 전 이야기한 블랙록이라든가 영국 성공회기금, 교회기금, 대학기금 이런 주주들이 전부 그 주주를 밀어줬기 때문이었어요. 이 주주들은 사회적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이때까지 엑슨 모빌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설득하는 것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여행해 보시면 알다시피, 월마트에 가면 안 파는 게 없어요. 무기도 팔아요. 가정에서 호신용으로 권총을 사둘 수는 있는데, 대량 살상용으로 쓰이는 자동 권총, 라이플 등을 월마트에서 꼭 팔아야 하나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마트에서 이러한 총기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줄인다는 것으로 이익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이 줄더라도 대량 살상용 총기 판매를 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국 성공회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특별히 받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ESG의 주요 이슈가 뭘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 것은 좋은데 중구난방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이죠. 특정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벌여주는 게 목적이면 할 일이 대강 나와요. 그런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IMF에서 이렇게 정리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환경 분야에서 뭘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와 닿죠. 조금 깔끔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뭘 해

야 하느냐는 여기 몇 가지 안 나왔지만 정말 많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다음에 투명 경영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는 사실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학계에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결국 제일 어려운 분야가 ‘사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작업장 안전’이죠. 현대오일뱅크에 가면 저런 간판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 다치면 뭐 하나, 돈이 무슨 소용이냐, 안전이 최고다”라고 하며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죠. 과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는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논의되는 주제의 특색이 무엇이나 하면, 회사 안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안쪽 작업장 안전, 종업원 복지,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 바깥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ESG는 유행인가’였잖아요.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별 영향이 없는데,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워렌 버핏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심하게 말해서 “자기 힘으로 돈 벌지 않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잘난 척한단 말이야”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 난감한 거예요. 지금 래리 핑크는 한 발짝 더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ESG에 특히 S 측면에서 인권도 포함하려 합니다. 지난 3월, 버크셔 주총에서 양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인권은 훌륭한 가치지만, 기업 경영에 집어넣으려면 거의 블랙홀 같은 것’이라며 래리 핑크 입장과 맞서며, 설전까지는 아니지만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이를 막 환영할 것 같죠. 사실은 안 그래요.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런

왜 그러냐 하면, 미국 노동부가 얼마 전에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기금은 ESG에 투자 금지를 권고했어요. 아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퇴직연금기금은 누구 돈으로 쌓였던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그래야 노동자들의 노후가 편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ESG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ESG를 표방하는 회사는 투자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노동부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보스턴 대학의 David Webber 교수가 낸 책을 보면, 미국에서는 노동운동이 사실상 소멸했다고 봅니다. 100년 동안 역사를 뒤로하고, 현재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 10%도 대개 공공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노조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100년 동안 노동자들이 쌓은 돈이 기금이 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주주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주와 종업원들의 이해관계가 노조와 상치된다고 봤는데, 이젠 노조 자신의 선배들이 주주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프랑스가 지금 ESG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진보주의적 성향일뿐더러, 프랑스에서 가장 ESG를 열심히 하는 경영자가 다논의 Emmanuel Faber라는 회장입니다. 다논은 식품회사이기 때문에 식품 가공에서 엄청난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다논은 유기농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나서며, 사업 구조도 바꾸고 고용도 조정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사람 자체도 굉장히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

로도 임직원과 똑같은 보너스 체계로 바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자기도 희생하고 고통 분담하고 훌륭한 사람이예요. 하지만 올 초에 경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린 거예요. 왜냐하면, 파버 회장의 경영방식은 너무 훌륭하지만,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경쟁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50% 평균 50% 올랐는데 다논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주주가 이를 경질하며 결국 퇴출당하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Bebchuck 교수가 *Cornell Law Review*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래리 핑크가 투자회사 회장들에게 ESG를 잘하자고 하니, 회사들은 이를 잘하는 척이라도 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200대 회사의 최고경영자들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앞으로 ESG 경영을 하겠다 결의합니다. 그런데 Bebchuck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 200개 회사 중에 정관 개정을 한 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ESG를 표방하는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법이 뭐라 그랬죠? 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뭐라 그래요? “곤란합니다. 현행법이 바뀌기 전에는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겠죠. 그래서 Bebchuck 교수는 “정관 개정한 회사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보여주기이며, ESG는 쇼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법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회사 이념에 따라 열심히 경영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포드 자동차 판결 같은 판결이 없어서 제약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SKT에서 정관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SKT의 정관을 보면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 이런 말이 나오죠. ‘장기적 가치 이해관계자 행복 지속’ 이런 말

들이 쪽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 SKT의 경영자들은 저대로 하다가 회사에 손해가 나도 법률적 책임을 안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하겠죠.

ESG에 프랑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ESG 경영을 표방하라는 취지로 상법과 민법을 개정했어요.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 법률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프랑스는 지금 나라 전체가 ESG를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헌법 1조를 개정해서 기후변화, 사회,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말들이 나오도록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죠. 모든 기업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뭘 할지 심사숙고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ESG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믿을 수 있나요? 어떤 회사가 ESG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언론은 이를 받아 쓰고만 있어요. 나중에 잘못된 정보라고 드러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결국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의무에 ESG 경영 보고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면 민·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법을 강제할 경우,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많고 중구난방인 문제에 누구에게 벌을 가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보고 있는데, 미국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합의는 이루어졌어요. 특히 기후변화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1~2년 지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준 법학 논문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계가 회계학계입니다. 이것이 회계 원칙에 어떻게 반영돼서 기업의 회계 장부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 그게 실패하면 ESG는 한때 유행으로 아쉽지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내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여성 이사의 확충'입니다. 내년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못 구해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내년에 발효되는 법률에 따르면, 시총 2조 이상 되는 기업은 이사회 전원을 단일 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을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여성 인재를 키우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밖에서 구해야 돼요. 회사 밖에서 사외이사를 여성으로 모시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 여성 인재가 또 어디 많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여성 인재를 많이 키운 곳이 대학이에요. 대학의 여교수님들께서 이제 사외이사로 많이 진출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의 중심으로 몇 년 동안 노조가 사외이사로 진출하고 적어도 노조가 추천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해왔는데 잘 안 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에서 첫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논의가 거세질 것 같고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ESG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는데 뭐든지 또 나쁜 점도 분명 있죠. 기업지배구조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재산적 역량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왜 삼성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은가요? 삼성이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산적 역량이 생기고 나뉘는 과정에 어떤 허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정경분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부회장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ESG 위협이라는 것은 정치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사회적 책임' 그 대목에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는 고용 안정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공백을 시민단체들이 메워왔는데,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정치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ESG를 본격적으로 해서 아예 정치권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위험이 생겨요. 이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많이 이야기하는 'ESG-washing'으로, 좋지 않은 회사가 ESG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투자가 많아지면 회사채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업 경영하는 사람에게 회사채 금리는 저승사자예요. 그런데 ESG를 잘하면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본 비용도 작고, 비용 대비 성과가 좋기 때문에 회사가 단기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파장이 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

나의 기업이 안 되면, 여러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특히 사회적 책임을 워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순도 있습니다. ESG의 모순이 뭐냐 하면, 캐나다 UBC의 유명한 Bakan 교수가 최근에 쓴 책을 보면, ESG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경제력을 집중시킬 것 같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ESG할 여력이 없어요. 큰 기업일수록 기여를 많이 하고 여력이 생깁니다. 지금 경제력을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한데, 의도치 않게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소유를 분산시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너 경영 그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ESG가 소유 집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하버드 Roe 교수가 오래전에 한 이야기예요. 유럽 기업들이 소유가 집중된 이유가 자본이 사회민주주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현상입니다.

기업들은 외부의 어떤 압력이 심해질수록 내부의 응집력이 필요해요. 대우조선해양을 보십시오. 기업 경영에 하등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기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의 역량을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겨놓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걸 국민이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경영인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오너들 비판을 많이 하지만 오너들은 사회적 자본이 막강한 사람들이예요. 정치권이나 외부에서 함부로 터치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견재할 수가 있죠. 물론 그 힘을 이용해 사사롭게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또 나쁜 일이지만, 그래서

ESG를 열심히 할수록 소유 집중을 발생시키는데, 소유 집중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부할수록 생각이 달라지는데, 순환 논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나 하면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 ‘사회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돈 많이 번다.’ 아니요.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적 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확실하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와 분리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경영은 숫자로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요. 친환경 경영은 꼭 해야 하는 것이 되었죠. 투명 경영은 지난 30년 동안 돈이 된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S는 조금 더 두고 보자는 건지입니다. 기업이 이때까지 하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좋은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제 집약되는데, 얼마 전에 SK가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너가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거나 오너도 1/n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 찾아내서 정착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이제 튼튼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치와 기업 세계사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에 불러 나왔고 제일 큰 기업의 총수에게 “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안 물려줄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까지 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게 왜 생겼냐 하면요. 지금 준법감시인도 있고 법무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게 왜 새로 생겼냐 하면 이

재용 부회장이 재판 받을 때 재판부가 앞으로 삼성은 준법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준법 감시가 잘 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그걸 감안해서 양형에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삼성에 이를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이제 머리를 써서 여러 가지를 정비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거 봐주려고 저런 거 아니냐 재판부가 실형을 안 살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하는 것과 같이 준법지원실과 법무실을 잘 정비해서 근사하게 내놓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전혀 예상밖의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카드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건 뭐냐 하면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7개가 합심해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회사 내에 설치한 게 아니고, 회사 밖에 설치합니다. 회사 내에 설치하면 상법의 영역인데 회사 밖에 설치했기 때문에 계약법의 영역입니다. 그 계약을 맺어 '우리 준법 감시 좀 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죠.

문제는 그 계약 내용에 충수 감시가 있고, 노조 문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주식회사의 가장 높은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어떤 조직이 등장한 거예요. 이것은 첫째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 위원회를 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물론 있는데, 시민사회 출신, 그다음에 진보 언론 출신 이런 분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죠. 결국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종식하는 선언을 끌어냈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아들한테는 물

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끌어냈어요.

그렇지만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저것은 바람직한 징후가 아니므로, 저는 이제 위원회가 실적을 많이 냈으니까 저 기능을 각사로 편입시켜 이사회가 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아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없애야 하는데, 삼성은 절대로 없앨 수 없죠. 그건 자기 모순이죠. 스스로 해야 하는데 기구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와 자본 관계를 조율해 왔는데, 이상하게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 기능을,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걸 하게 됐고요. 다음에, 그룹 경영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각 회사가 계열사가 독자적으로 이사회 경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옛날 비서실을 없었는데, 어딘가 비슷한 게 다시 등장했어요. 앞으로 이거 두고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ESG는 유행인가?'라고 제시했으니, 제가 뭐라도 답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 생각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정말 색다르고 멋진 안경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물을 볼 때 쓰던 안경이 아니고 사물을 좀 더 다시 폭넓게 정밀하게 보는 안경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보던 물건이 새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 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안경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 안경을 쓰고 우리가 몇 년 이제 세상을 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미국이 모든 걸 이제 선도하는데, 포드 자동차 판결에서 나온 미국에서 그 법 원칙이 바뀌려면 1~2년 갖고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많은 소송이 나

와야 하고 법원 판결이 쌓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계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학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회계 원칙이 적응을 해야 하는데 특히 글로벌 하게 적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IFRS(국제회계기준)가 나오는 데도 그렇게 진통을 겪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 회계학이 과연 제대로 요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각 단체에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회계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회계 때문에 ESG가 세상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한번 봤으니 앞으로 우리 행동은 달라지겠죠. 기업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 행동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유행이긴 하지만 세상을 바꾼 유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재밌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실까 궁금했었는데, 아주 멋진 결론을 내주신 것 같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거리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ESG에서 이제 S를 빼라고 하셨는데 Social 경영을 더 할 여지는 없는지가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ESG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역 간의 균형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요.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정의 이런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소셜에 담길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ESG에서 S를 빼는 거

말고 더 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김화진: 글썄요.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ESG 셋이면 중요한 모든 것은 이제 커버된다고 볼 수 있고요. S를 그만하자 이런 건 아니고, 이게 그냥 뭘 표방해서 앞으로 절대적인 지향점으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더 해야 하죠. 예를 들면 요즘 MZ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과 보상이라고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회사를 내 인생으로 알고 평생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평생 직장을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또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따라서 성과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나중에 잘해줄게’ 이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회사 떠나고 나서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성과 보상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S에 속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어떤 사회적 책임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포드 자동차 판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업 경영에서 장기적으로 관련되는 의미 있는 활동은 지금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회사 이익을 훼손까지 해가면서 사회 기여를 하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S의 범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뭐랄까... 아까 다는 경영자가 퇴출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돈을 번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아예 사회적 기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ESG를 우선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 경영 차원에서 소위 본말이 전도될 정도로 그것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것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호남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7~80년대 정치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압니다.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와야죠. 이런 일을 기업들이 했겠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해결해줘야 할 문제지, 기업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업이 S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발휘해서 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면, 기업 경영 관련해서 ESG를 한정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명확한데, 문제는 ESG가 유행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ESG를 이야기하잖아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ESG 이야기하고요. 대학에서도 그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도 ESG 이야기 막 하거든요. 너도나도 ESG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 소비되는 ESG 개념은 기업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NGO도 ESG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에 특화된 ESG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래는 기업의 경영활동, 지속가능경영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인데, 여기저기 다른 기관,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김화진: 네, 매우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지금 ESG를 기업 경영에 관해서 도입해서 쭉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별개로 우리가 살다가 나와 원래 관계가 없더라도 좋은 일을 따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할 일이지 않습니까? 학교, 공공기관, 병원들도 얼마든지 도

입 가능하죠. 예를 들면 제가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강연할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하다 보니 이야기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S가 기업 내부적인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을 보세요. 간호사들 사이에 태움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괴롭히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죠. 의료진 사이에 이런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응급실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와 가족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그래서 의료진한테 행패 부리고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일이 많죠. 이런 문제들이 기업이든 어디든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는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방법으로 ESG를 따라 한번 해보자 한다는 것은 이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학교는 응급 상황도 없는데요. 학교도 모든 곳에서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활동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친환경 합시다’라고 만 했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SG라는 막강한 어떤 설득력 있는 도구가 출현한 것이예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온 사방에서 ESG를 이야기하지만 뭘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대학에서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생업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대학의 특권이자 의무가 조용히 생각할 여유를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ESG가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하고 정리해서 밖으로 기업, 병원, 시민단체에 내줘야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대학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 인문대학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문대학, 환경대학원 등 온갖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힘을 모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해서 사회에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ESG 경영이 문제 되기 때문에, 경영대학이나 경제학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대학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답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인데 이를 한 그릇에 담아주는 게 ESG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교: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ESG가 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기업은 이윤 창출 문제와 부딪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반면,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다른 기관은 오히려 가치 충돌 문제가 덜하므로 ESG를 구현하는 게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단체 감시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가 오버슈팅이 되기도 하죠. 한국의 경우 굉장히 특수한 시민단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단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 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연기금 관련해서 한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ESG 논의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화진: 시민단체 역량은 제가 특별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인력이나 자금 측면에 있어 하는 일에 비해서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될 수 없다면 유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시민단체와 학계가 연대하

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 모형이예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를 끌어온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같은 성과는 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정치색이 깊어요. 우리 시민단체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지금도 정치색이 조금 열리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화진: 스투어드십 코드는 원래는 지배구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인간 사회가 먹이사슬로 돼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게 돈 가진 사람들, 부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아무리 부자라도 얼마 돈 안 돼요. 지금 애플 보세요. 애플이 시가 총액이 지금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법대 한 교수님이 계산했는데, 우리가 매일 300만 원씩 쓴다면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오늘까지 쓰는 돈이 1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것에 2천 배인 거예요. 누가 그 돈을 가집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부자가 됐다고 해도 기업에 비하면 작고요. 그렇다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여윳돈을 굴리기 위해서 맡겨 놓은 기관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이 맡겨 놓은 돈을 굴리는 사람들, 스투어드이며,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스투어드십 코드입니다.

남의 돈을 관리하더라도 내가 쓸 때는 거의 내 돈을 쓸 때와 똑같은 효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회장과 친하다고 해서 그 회사에 많이 투자하고 주춍가서 무조건 찬성해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빌려주는 게 의무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의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가 굴리는 돈이지만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회사에만 돈을 넣어 불러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돈 맡긴 사람들이 양해해 준다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이고요. 지금 블랙록이 총대를 멧기 때문에 이는 변함없이 지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맡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래리 핑크가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내 돈이 수익률이 0.1% 떨어진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우리 월마트에서 대량살상무기 못 팔게 해서 수익률 떨어진 부분은 이해하세요’ 하면 모두가 이해하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교: 아까 워렌 버핏 말씀하셨는데, 이런 헤지펀드들도 ESG를 따라오는 기미가 있나요? 아까는 반대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김화진: 헤지펀드들은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고 앞당겨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0.02%로 주주가 됐다는 기관도 헤지펀드고요. 헤지펀드는 과거에 악명이 높았잖아요. 악당으로서 우리는 돈만 번다했지만,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 책임을 하라는 것이 단골 메뉴예요. 그래야 자기들 정체성이 유지되고 그 사람들 진심은 모르지만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헤지펀드들은 원래 수익률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되면 뭐든지 합니다. 과거에는 악역을 하면 돈이 되었고, 지금은 ESG를 내세우면 돈이 되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앞으로 ESG를 리드할 거고요. 큰 기관이나 교회, 대학이 리드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헤지펀드가 앞장 서서 나가면, 저 펀드가 0.02%밖에 안 되니,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악역을 네가 좀 해라. 우리는 뒤에 있을 테니...” 이렇게 됩니다.

구민교: 다음은 김범수 부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 ESG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들이 ESG를 추구하기 어려운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견인을 해야 하는 건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화진: 앞으로 우리가 이에 대해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이에 대해 이렇다 말하기 이른데, 최소한 당분간은 ESG를 내세우면 기업이 잘 됩니다. 왜 주가가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업의 내실과 사실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머니 게임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앞으로 한 3, 4년 후에 ‘ESG라는 걸 한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어’라고 하든지 ‘한번 실험해봤는데, 안 되겠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은 저뿐만 아니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구민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시기로, ESG가 대기업은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

습니다. 조금 차원을 넓혀 국가 단위로 보면 선진국들은 ESG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있는데, 개도국들은 어디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요? 개도국들은 지금 거의 끌려 가야 되는 상황처럼 느껴지거든요.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ESG가 결국 돈의 흐름이 개도국들에게도 큰 압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도국들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방 안에 있는 거대한 코끼리”인 중국도 요즘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탄소 중립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중국의 경우 SG는 요원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ESG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의의가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국제 정치 관점에서 보면, ESG를 못 쫓아가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라가는 인센티브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개도국으로서는 서구 국가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따라갈 여지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닌지, 조금 막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사실 말씀 정확하신 거예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내놨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걸 너무 좀 무리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갑자기 남들은 막 10년, 20년 전부터 하던 걸 갑자기 따라잡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ESG 중에 G는 IMF나 IFC(국제금융공사) 같은 개발기구들이 중점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진부하지만 ‘물고기 잡는 법’

을 가르쳐줘야 하나까요. 계속 차관 주고, 원조하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개발기구들의 역할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중국은 G와 관련해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10년쯤 차이가 날 정도로 낙후돼 있는 나라거든요.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불공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더구나 S는 정치 체제 때문에 다른 이야기겠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구 교수님 말씀대로 신흥국가들이 중국을 따라가고,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에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IMF, IFC,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과 같은 개발기구들이 돈을 더 많이 투입하고 열심히 지원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민교: 김화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근래 들어본 ESG 강연 중에서 가장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ESG의 방향성은 맞는데, 결국은 문제는 속도, 특히 S와 G 관련해서 속도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S를 빼자고까지도 하셨습니다만, 순서 바꾸는 것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나가는지가 앞으로 ESG의 성패에 열쇠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김화진(Kim, Hwa-Ji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미시간대 로스쿨 글로벌 석좌교수다. 스탠퍼드대와 텔아비브대 등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은행'을 강의했다. 현대중공업지주 ESG위원회 위원장이다.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학술 저서가 있고 최근 저서로 'ESG와 이사회경영'이 있다.

구민교(Koo, Min Gyo)—————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및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하버드-엔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하였다.